

# 쿠바 미사일 위기...역사상 가장 위험했던 그 순간

0시 1분 전

마이클 돛스 지음

영화 '엑스맨 : 퍼스트 클래스'는 1962년 10월 27일 인류가 전후후하게 핵전쟁으로 인한 종말에 가까웠던 시기를 배경으로 한다. 당시, 쿠바에 설치된 소련의 미사일 기지와 관련 미국과 소련은 팽팽하게 대립했다. 미국은 함대 85척을 편성해 쿠바와 소련을 압박했고, 소련은 크루즈 핵미사일을 동원했다. 미국과 소련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면 1억명의 미국인과 그 이상의 소련인, 그리고 수백만명의 유럽인들이 희생됐을 것이다. 이 사건은 인류에게는 가장 치명적이었던 핵 전쟁



미국 함대 85척·항공기 200기

핵무기로 무장해 쿠바 겨냥

소련은 크루즈 핵미사일 동원

핵전쟁 일촉즉발 위기에서 멈춰

위였다. 마이클 돛스의 '0시 1분 전'은 이른바 쿠바 미사일 위기를 파헤친다. 신문사 기자 출신인 저자는 과거 자료를 발굴하고 목격자와 인터뷰를 하는 등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해 준다. 또 쿠바의 미사일 기지를 방문하고, 미군 정찰기가 찍은 수천 장의 사진을 검토해 역사의 사건에 사실적으로 접근한다. 소련의 전직 군인과의 인터뷰, 미국 정보기관의 감청정보, 미국의 정찰기 U-2 조종사의 기억, 국가문서보관소에서 찾아

낸 U-2기의 2시간에 걸친 소련 영공침범에 관한 미공개 지도 등도 곁들였다. 이처럼 철저히 발품을 판 덕분에 당시 상황을 더욱 생생하게 알려준다. 저자는 "핵시대의 역설은 미국의 힘이 이전보다 훨씬 강해졌지만 단 한 번의 치명적인 오판으로 모든 상황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고 강조한다. 쿠바 미사일 사태는 쿠바의 피델 카스트가 소련의 니키타 흐루쇼프에게 '공동의 적을 상대로 핵공격'을 촉구하는 전보 내용을 구술하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 소련군 핵탄두가 쿠바 미사일 기지 인근으로 옮겨졌고, 쿠바 동부에서는 미국의 U-2기가 격추됐다. 또 다른 U-2기는 소련 영공을 침입했고, 미 해군은 폭뢰를 투하해서 소련 해군의 핵무장 잠수함을 수면 위로 강제 부상시켰다. 쿠바군은 미군 저공 정찰기를 상대로 발포하기 시작했다. 미합참은 쿠바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 계

획 수립을 끝냈고, 소련군은 전술 핵무기를 관타나모 24km 이내로 옮겼다. 이 모든 상황 하나하나가 초강대국 사이의 핵공격을 촉발시킬 수 있었다. 미국은 테프콘 3단계를 발령, 15분 내로 미국 전역에서 핵폭격기가 출격할 수 있도록 했고, 항공기 약 200기가 핵무기를 무장한 채 이동했다. 다행스러운 것은 누구도 핵전쟁을 원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책은 미국과 소련, 쿠바의 당시 상황을 상세히 전해준다. 우선 소련의 상황이 좋지 못했다. 소련은 서쪽으로 터키에, 동쪽으로는 일본에 배치된 미군 기지로 둘러싸여 있었다. 미국을 겨냥한 소련 핵미사일보다 소련을 겨냥한 미국 핵미사일이 훨씬 많았다. 사건의 발단은 알려진 것처럼 터키에 배치된 핵탄두였다. 소련은 발사 뒤 5분이면 소련에 도달할 수 있는 터키에 미국 핵탄두가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흐루쇼프에



1961년 6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난 흐루쇼프(왼쪽)와 케네디. (모던타임스 제공)

는 별장 방문객에게 썬안경을 건네주고 "뵈가 보이느냐"고 묻곤 했다. 대부분 방문객이 바다의 경치를 말했지만 그는 "내겐 미국 미사일이 보이오"라고 답했다. 사건은 미국의 케네디 행체가 '쿠바에서 미사일을 철수시키면 미국은 터키에 배치한 미사일을 포기하겠다'고 은밀하게 제

안하면서 끝났다. 한편 책의 제목은 핵전쟁 위기를 경고하는 맨해튼 프로젝트의 과학자들이 만든 운명의 날 시계를 의미한다. 이 시계의 현재 시각은 0시 5분전이다. (모던타임스·3만3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시인이 던진 그물에 올라온 남도의 21개 보물섬 이야기

섬 택리지

강재윤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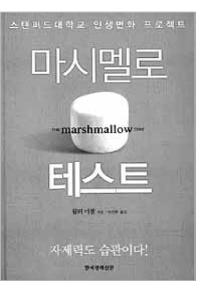


시인 강재윤은 신안 자은도의 갯벌에서 밀레의 만경을 봤다. 자신은 깨닫지 못하지만 한우리 갯벌과 함께 하나의 풍경이 되어 살아가는 어부들, 반짝이는 갯벌에서 그물을 들고 그렇게 살아온 어부들을 "필시 갯벌의 만종이다"고 말했다. 섬 여행자가 강 시인이 남도의 보물 같은 섬 스물한 곳을 걸으면서 공들여 기록한 책 '섬 택리지-강재윤의 남도 섬 여행기'를 펴냈다. '물과 섬 사이에 오솔길을 내는 사람', '섬과 섬 사이에 노둑들을 놓는 사람'으로도 불리는 강 시인은 섬 문화와 해양 유산, 역사와 지리, 인물 등 유무형의 숨어 있는 보물들을 살피고 써내려갔다. 이중환의 '택리지'에서 제목을 따온 이 책은 지리서인 택리지와 달리 바다와 섬이라는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을 인문학적 시각에서 살핀다. 완도 보길도가 고향인 시인은 10

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섬에서 이어진 섬 줄기를 따라 걸었다. 긴 세월만큼 그가 섬을 헤아리는 안목도 깊고 밝다. 책에서도 시인이 던지는 인문학적 사유의 그물이 유형과 무형의 보물을 가리지 않고, 또 시공과 경계에 걸림이 없이 펼쳐진다. 시인은 섬에서 만난 돌담이나 300년 된 국보급 옛 선장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물을 그리워하는 섬사람들의 애환을 담은 가거도 할머니의 민요, 흑산도 해녀 할머니가 불러주는 '진리 뱃노래', 그리고 구성진 들노래들이 책에는 빼곡하게 기록돼 있다. 그리고 시인은 말한다. "섬의 보물들이 아주 사라져 버리기 전에 서둘러 보존할 방법을 찾자." (호미·1만7000원)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불황의 경제학=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경기침체 경향에 대해 "현대의학에 의해 밝혀진 줄 알았던 치명적 병원균이 기존의 모든 항생제에 내성을 지닌 형태로 재출현한 것과 같다"며 "대공황이 우리 할아버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준 교훈들을 다시 배우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남아시아의 외환위기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정확히 예언했던 그는 경기침체와 장기불황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를 전담한다. (세종서적·1만5000원) ▲독학=철학자이자 종교학자이며 전문저술가인 저자가 '독학獨學'이라는 키워드로 일반인이 공부를 통해 자기 변화를 어떻게 추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저



자는 자기개발과 결합된 인문학 책 읽기를 권하는 기존의 다른 저서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험 합격, 입사, 자격증 취득처럼 세속적 성공을 추구하는 공부 아닌 오직 자신의 흥미를 추구하는 공부가 어떻게 일상을 바꾸는지를 이야기한다. (이룸북·1만1000원) ▲사자, 포효하다="한 몽상가의 여사론", "당신들의 일본"을 통해 우리 사회 여러 문화 현상들을 줄기차게 비판해 온 유순하의 청년 문화론. 빛나는 청춘들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다. 생명처럼 긴요한 희망이 아예 불가능한 불모 상태에서 지향마저 불확실한 항해를 할 수밖에 없는 젊은이들에게 진정한 희망은 무엇이고, 그 희망은 어떻게 획득될 수 있는가를 들려주고 있다. (문이당·1만3000원) ▲마시멜로 테스트=마시멜로 테스트의 창안자 월터 미셸 박사는 유혹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자제력 또는 의지력, 즉 자기를 통제하는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50

여 년간을 마시멜로 테스트에 매달려온 결과, 자제력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후천적 노력에 의해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단호히 말한다. 그 근거로 마시멜로 테스트에서 15분을 참은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긴 시간에 걸친 추적 조사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1만5000원) ▲신념과 의심의 정치학=20세기를 대표하는 보수주의 정치철학자인 오크소트가 사망한 후에, 그가 거주하던 도시 해안의 통나무집에서 발견된 원고 문장을 편집해서 출판한 책. 오크소트가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지는 정치를 이해하는 데 그리고 정치를 실천하는 데 중용의 감각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이다. 그는 '신념정치'와 '의심정치'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는 명제를 대들보로 삼아서 책 전체의 논의를 끌고 간다. (모티브북·1만5000원)

## 어린이 책

▲박상구의 좋은 점 찾기=못말리는 개구쟁이 삼촌이 있는 동훈이, 동훈이에게 삼촌은 정말 칭찬하고 괴로운 존재다. 같은 학교 같은 1학년, 그것도 모자라 같은 반 친구인 '박상구'가 바로 동훈이의 삼촌이다. 다른 친구들이 자랑하는 멋진 어른 삼촌이 부럽기만 한 동훈이는 어린 삼촌이 영 못마땅하고 싫기만 하다. (노란돼지·1만원)



▲용선생의 시골벽적 한국사 10=어린이 역사책 시리즈 완간편인 10권 '우리가 사는, 우리가 만들 대한민국'이 나왔다.

'용선생 한국사' 시리즈는 2012년 5월 1~8권이 출간된 후 60만 부가 판매된 어린이 역사 분야의 베스트셀러다. 만화가 아닌지만 아이들 스스로 책을 펼치게 하는 재미를 준다. (사회평론·1만3800원) ▲할머니 어디 계세요?=알츠하이머 병으로 고통 받는 할머니를 자신의 삶에서 떠나보내야 하는 한 어린 소년의 이야기. 주인공 루크의 제일 친한 친구는 할머니다. 부모님이 일하러 나가는 동안 루크는 무슨 일이든 할머니와 함께 하곤 했다. 하지만 어느날 할머니가 쓰러지신 후 모든

것이 달라지고 말았는데... (다섯수레·1만2000원) ▲달려라 오토바이=났었지만 씩씩한 오토바이는 여가게 넓은 아빠와 꽃 바지를 즐겨 입는 엄마, 속 깊은 큰딸과 철없는 두 동생을 너끈히 태우고 달린다. 이 가족에게 오토바이는 아동의 수단을 넘어서 든든하고 정다운 가족이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처음으로 가족을 떠나 먼 곳으로 일을 하러 가게 되고 가족들의 아쉬움은 크기만 하다. (문학동네·1만1000원)

**시내지국**

광천	366-8375
남광	222-9440
남부	652-0175
동광	264-2012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흥훈	267-4748
백운	673-4698
봉선	675-5530
북광	525-3761
상무	372-2352
서광	369-0583
송하	676-6605
신안	512-1732
양산	571-7658
오치	266-7601
우봉	522-7752
우산	512-8116
운천	371-9818
월곡	961-2339
중흥	222-1896
중흥	224-6604
진월	673-1600
침단	973-2900
장정	224-8212
치평	376-6511
풍암	682-8112
하남	959-1500
화정	375-9682

**지방지사**

광산	062)944-0444	남원시	063)626-1601
군산시	063)467-2500	순창군	063)653-0444
정읍시	063)531-5544	서울북부	02)313-5962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3년

#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고문의\_062 227-9600 | 신문구독\_062 220-0551 | 예향구독\_062 220-0550